

2022년 8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대전MBC

1. 회의개최

| 연번 | 일시 | 장소 | 참석인원 | | | | 회의형태 | | |
|----|-----------|------|-----------------------------|------------|-------------|----------------|------|-----|----|
| | | |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 방송국 | | 총 인원 (명) | 대면 | 온라인 | 서면 |
| | | | | 경영진 (명) | 경영진 외(명) | | | | |
| 1 | '22.8.30. | 대면회의 | 9/10 | 5 | 2 | 16 | ○ | |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최병욱 위원장, 정훈진 위원, 임재근 위원, 황혜진 위원, 류용환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 :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윤성희 편성국장, 최종명 인프라국장
- 경영진 외 : 이은표 시청자위원회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 편성 | 방송프로그램 | | | | | 자체 심의규정 | 합계 |
|----------|--------|----|----------------|----|----|------------|----|
| | 보도 | 교양 | 연예·오락 (스포츠) | 기타 | 소계 | | |
| - | 3 | 2 | - | - | 5 | - | 5 |

나. 사업자 반영

| 구분 | 수용 | 의견참고 | 반론 | 합계 |
|----|----|------|----|----|
| 건수 | 5 | - | - | 5 |

* 제시의견 비율 기준으로 평가(활용비율 0%는 0점)

다. 2022년 7월 의견제시 (시정요구)

| 구 분 |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제시 월 |
|----------|---|--|--------|
| 보도 | 대전지역 화폐인 온통대전 존폐 논란 이슈에 대해 집중 보도해 주었으면 | 지역화폐에 대한 면밀한 취재를 통해 선순환, 기회비용 등의 분석 보도 예정 <22. 8월 조치> | '22.7월 |
| 보도 | 지방정부 출범 후 굵직굵직한 공약 이행 여부 보도 필요 | 반도체, 우주청, 서해권 개발 등 지역의 정책 이슈를 뉴스를 통해 점검 예정 <22. 8월 조치> | '22.7월 |
| 교양 | <시대공감> 너무 많은 주제를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주제라도 번갈아가면서 하면 어떨지 | 여러 코너들을 능숙하게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의 이슈도 알차게 준비하도록 노력할 예정 <22. 8월 조치> | '22.7월 |
| 교양 | <시시각각> 코로나 관련 시민들의 인터뷰나 설문문을 통한 시민들의 입장 들어주길 | 직접 취재가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나 양케트를 포함해 다채롭게 구성 예정 <22. 8월 조치> | '22.7월 |
| 교양 | <오늘M> -화,수,목 3일만 방송하는데 월,금까지 5일 방송하면 좋을 듯 | 인력문제, 아이템 등 임팩트 있는 구성을 위해 3일로 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었음.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 예정 <의견 참고> | '22.7월 |
| 교양 | 문화재 지정 번호 작년말 폐지됐는데 사적 제00호 공산성으로 화면 송출 잘못돼 | 문화재 지정번호 폐지 사실 몰랐는데 즉시 수정 조치 <22. 7월 조치> | '22.7월 |
| 기타 | <홈페이지 클럽 및 VOD> 클럽은 시청자가 보기 좋게 짧게 편집해서 올려주시고, 테마기행길은 소개하는 장소 기입해주길 | 클럽은 콜라보를 통해 더 알차게 준비하겠고, 테마기행 길 장소 소개도 적극 반영 예정 <22. 8월 조치> | '22.7월 |
| 게시판 (기타) | <이어서 ID 화면> 한가지 영상을 오래 내보내지 말고 여러 가지 명소를 병행해서 내보내 주길.. | 올해부터 지역성 강화를 위해 지역 명소 ID를 계절별로 운행하고 있는데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는 중. <22. 8월 조치> | '22.7월 |
| 게시판 (기타) | <세종시 10주년 행사> 세종시 가수를 부를 때 트롯보다는 3040 세대를 생각해 주시길 |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대가 공감하는 취지로 기획되어 다양한 장르의 출연진을 구성한 것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반영 노력 예정 <22. 8월 조치> | '22.7월 |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 요 청 내 용 | 조 치 내 용 | 조치일자 | 비고 |
|---------|---------|------|----|
| 해당사항 없음 | | | |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2000.0 ~ 2000.0)

| 성 명 | 생년월일 | 전·현직 | 변동사유 | 비고 (임기) |
|-----|------|---------|------|---------|
| | | 해당사항 없음 | | |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 평가기준 | 해당여부 |
|---------------------------------|------|
| 2022년 8월에 집계된 시청자 불만사항 회의 전 고지 | ○ |
| 시청자위원 및 임원진이 함께 공유하는 온라인 대화방 개설 | ○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대전MBC 홈페이지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위원별 상이)

| 구분 | 성명 | 전·현직 | 추천단체 | 추천부문 | 비고 (임기)* |
|------|-----|----------------------|-------------------|--------|-----------------------------|
| 위원장 | 최병욱 | 한밭대학교 총장 | 대덕연구개발 특구협의회 | 과학기술단체 | 남/1961 21.05.01~23.04.30 |
| 부위원장 | 이희중 | 대전보건대학교 방송컨텐츠과 교수 | 대전동구 사회복지협의회 | 소외계층대변 | 남/1964 21.05.01~23.04.30 |
| 위원 | 임재근 |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소장 | 민주노총 대전본부 | 노동단체 | 남/1978 21.05.01~23.04.30 |
| 위원 | 정훈진 | 변호사 | 대전지방변호사회 | 변호사단체 | 남/1967 21.05.01~23.04.30 |
| 위원 | 황혜진 | 대전공공미술원 대표 | 대전동구문화원 | 문화단체 | 여/1977 21.07.01~23.04.30 |
| 위원 | 류용환 | 한국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 한국소비자모임 | 소비자단체 | 남/1960 21.11.01~23.04.30 |
| 위원 | 손기배 | 굿네이버스 대전세종지부 | 굿네이버스 충청본부 | 인권단체 | 남/1983 22.03.01~23.04.30 |
| 위원 | 마정미 | 한남대학교 정치언론학과 교수 | 충청언론학회 | 언론단체 | 여/1966 22.05.01~23.04.30 |
| 위원 | 김정동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대전참여자치 시민연대 | 소외계층대변 | 남/1977 22.05.01~23.04.30 |
| 위원 | 박미숙 | (주)비앤비컴퍼니 대표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 경제단체 | 여/1964 22.05.01~23.04.30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 구 분 |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 | 답변내용 | 비 고 | | |
|-----|--|--------|-----|----|----|
| | | | 수용 | 참고 | 반론 |
| 보도 | <교권 침해 논란 보도> 수업시간에 일어난 사건 현상만 보도 했는데 그 사건의 연유와 배경 등을 더 취재해 보도했으면.. | 회의록 첨부 | | | |
| 보도 | <민선8기 정책 보도> 민선 8기의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준 비하고 있는지 보도 필요 | 회의록 첨부 | ○ | | |
| 보도 | <새 정부의 지역 공약>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적인 문제들에 대해 좀 더 깊게 취재해서 2~3주씩 방송했으면..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과인은 그러하오> 자막이 너무 많고, 유행어의 사용과 효과음이 과다해 시청에 장애가 됨. | 회의록 첨부 | ○ | | |
| 교양 | <레지스탕스 나의 전쟁> 음악적 효과가 너무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시각보다는 청각적으로 몰입되는 상황 발생 | 회의록 첨부 | ○ | | |

2022년 8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오후 4시

□ 장소 : 대전MBC 4층 대회의실

□ 시청자위원회 참석자 : (총 9명)

최병욱 위원장, 정훈진 위원, 임재근 위원, 황혜진 위원, 류용환 위원,
손기배 위원, 마정미 위원, 김정동 위원, 박미숙 위원

□ 회사 참석자 : (총 7명)

김환균 사장, 서주석 전략기획실장, 최기웅 보도국장, 윤성희 편성국장,
최종명 인프라국장, 이은표 간사, 이재근 실무담당

□ 회의록 전문

이은표 간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전략기획실 부국장 이은표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 10분 중에 9분이 참석하셔서 90%의 참석률입니다. 특히 오늘은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 못 해 주셨던 박미숙 위원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숙 위원

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지회 7대 회장을 지냈고요. 의료용 브러시를 생산하고 세계적으로 수출하는 비앤비 컴퍼니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위원으로 위촉을 받자마자 개인적으로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동안 참석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빠지지 않고 시청자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은표 간사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8월 대전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시청자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서는 총 7건의 의견이 올라왔는데요. 방송 잘 보고 있다는 의견 3건, 유튜브 업로드, OTT 방송 여부, 행사 문의 등 질문 3건이 있었고요. 제주 지역에서 대전MBC 라디오가 수신된다고 하는 사실을 공유해 주는 건 1건 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8월 대전MBC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전MBC 김환균 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오랜만에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정말 더웠고, 비도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서 우리 지역에도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재난 상황이었죠. 재난 상황에 가능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안타깝게 부에서 2명이 실종 되셨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병욱 위원장님은 한밭대학교 총장으로서 4년의 임기를 잘 마치고 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은표 간사

이어서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기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6일 총장 임기를 마쳤고, 학교에 평교수로 남아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도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많아져서 시청자 위원회를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름의 끝자락이고 가을을 재촉하는 여름의 마지막 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은 폭우 재난들이 있었고, 아직까지는 큰 태풍은 없었지만 오히려 태풍은 9월에 더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곡식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을 봤는데, 태풍 예보도 있긴 하던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편안한 가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새 정부의 좌충우돌도 조금 다듬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또 지방 정부도 7, 8월 연습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에 따라 정부나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시청자 의견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제 인사말은 이 정도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류용환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용환 위원

새로운 프로그가 하나 있더라고요.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방영되는 과학자들의 유쾌한 인생교민 상담소 '과인은 그러하오' 인데요. 우선 타이틀부터가 상당히 호기심을 자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8월 25일에 첫 방송하면서 '꼰대는 과학일까' 이런 타이틀을 붙였던데 상당히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카이스트출신 과학인과 김풍, 이 두 명의 MC가 진행을 했는데 평범한 일반인들의 소소한 현실 고민을 다룬 것 같아요. 사회 초년생의 고민, 중년 남성의 눈썹 고민, 주식에 몰두하는 투자자 얘기 등...

그런데 주식 투자자의 도파민 얘기를 할 때 도파민 분자식이 그림으로 나오던데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관련이 없는 분자식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도파민 분자식은 C8H11NO2 라고 돼 있던데, 화면에 나온 분자식을 도파민 분자식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방송임에도 출연진들의 호흡이 척척 들어맞고 유쾌하면서 빠른 진행으로 몰입도가 아주 높은 예능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특히 방영시간 50분이 순삭 될 정도로 고민의 주제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종의 알쓸신잡 같은 생활 속 소소한 지식도 곁들여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봤습니다. 지역 방송 작품이지만 중앙본사에서 제작한 것처럼 구성이 탄탄하고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에 나열되는 자막이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더라고요. 다른 프로에서도 종종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번 프로에서도 화면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다양한 크기의 자막과 서체 그리고 말풍선 등이 오히려 시청에 조금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인은 그러하오' 프로그램이 연예 오락 장르여서 그런지 조금 과다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또한 유행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문법에 맞지 않는 용어도 튀어나오고 효과음도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막은 무대 세트나 소품, 출연진 등에 대한 몰입 분위기가 끊긴다고 봅니다. 자막의 과다 사용을 줄이면 어떨지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이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시청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 전용 특을 만들어서 시청자 고민을 제보 받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특히 자막 사용 문제는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저도 그런 현상을 느끼는 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황혜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황혜진 위원

제가 1년 정도 시청자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몰입해서 대전MBC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시 보기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이번에 두 번째로 하면서 대전MBC에 더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문화예술 부문이다 보니까 영상이나 편집 부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중앙방송 못지않게 대전MBC 영상물도 참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모두의TV, 특집다큐 레지스탕스 나의 전쟁, 오늘M, 전국이보인다. 건강플러스, 테마기행 길, 과인은 그러하오 까지 7개의 프로그램을 메모를 하면서 봤는데요. 특히 '과인은 그러하오'를 재미있게 봤어요. 공감도 되고 50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갈 정도로 유쾌한 시간이었어요. 다만 마지막 부분의 끈대 직장 설명회에서 약간 불쾌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장년층 선배가 후배들에게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로 끝나는 그 결론 부분이에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입사원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선배들이나 끈대들의 배려나 일방적인 변화보다는 오히려 상호 이해하려는 노력으로 결론이 났으면 어땠을까 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다큐 레지스탕스 나의 전쟁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런 장르의 다큐나 프로그램들을 즐겨보고 있는데 대전MBC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일본의 역사 왜곡으로 일본 국민이나 학생들조차도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현재 215만 명의 외국인 거주민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한 자막이 같이 동반됐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은 굉장히 좋은데 이 프로그램을 보는 외국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전에는 특히 외국인 대학생, 외국인 강사, 지식인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볼 텐데, 논문이나 학회, 포럼 등을 통한 역사인식도 좋지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막방송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에 영어나 일본어 자막이 들어가면 혹시 방송법에 걸리는지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좋은 프로그램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같이 공감하고 그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방송에서 다뤄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의 TV'는 딸과 함께, 왕오천축국전, 아날로그 작업실, 판소리 드라마 코너 등 대전MBC 프로그램 중 가장 활기차고 다양성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M'에서 대전고 야구부 우승 방송은 지역의 자부심을 높여 주었고 우승 역경과 관련한 방송콘셉트로 제작을 하면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이 보인다'에서는 다양한 상공업에 대한 성공 사례를 소개해줘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이렇게 7개 프로그램이나 정리를 잘해 주셔서 다른 분들이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재근 소장님 부탁합니다.

임재근 위원

저는 주로 다큐멘터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는 작년에 이어 정말 잘 만든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 흥겨우 공원 거사 이후 순국 과정까지 담았는데요. 거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지는 많이 몰랐습니다. 특히 일본의 순국지와 암매장지가 소개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24년이라는 의사의 짧은 생애를 거사로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야학이라든지 또는 한시 저작 활동 등을 했다는 것들도 배울 수 있어서 한 사람의 인생사를 망라한 그런 내용이었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로 적합한 기획과 성과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본이나 중국 해외 출장에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필요한 장면들을 잘 담아냈고, 특히 자료화면으로 과거의 영상들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8월 14일 '시시각각'은 광복 77주년을 맞아 윤주경 국회의원과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전 현직 독립기념관장 두 분이 나오셔서 토론회보다는 대담 토크쇼 같았는데요. 특히 특집 다큐멘터리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특집 프로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1년 전에 했던 것도 다시 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해서 두 프로그램이 연계성을 가진 기획은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두 분이 점잖은 분들이다 보니까 박진감은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사소한 지적일 수도 있는데요. 모리 가츠토시라고 하는 일본 시의원 인터뷰 장면이 있었는데 그 분 의상이 하얀색인데 자막도 하얀색이다 보니까 자막을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준다면 품질 높은 프로그램으로 완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프로그램을 아주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훈진 위원님..

정훈진 위원

네 저는 시청자 위원회 일주일 전부터 유튜브에서 대전MBC 뉴스를 계속 모아서 보고 있습니다. 대략 20개 정도 보았는데 지적사항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걸 정말 노력한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와 '과인은 그러하오'를 봤습니다.

역사 속에서 알던 내용보다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접했고, 머리에 총을 맞은 사진 등 처음 보는 사진이었는데 그 만큼 노력하셨고... 그 사진을 보니까 정말 숙연해지고 독립운동가에 대해 뜻 깊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덤을 찾아서 여러 가지를 밝혀내는 과정들을 보니까 역사 찾기도 좋았고, 그동안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점들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습니다. 수고들 많이 했고 정말 잘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손기배 지부장님...

손기배 위원

8월 한 달은 다른 달보다 특집 방송 공지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휴가철인 8월 시즌에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구요. 디펜스 게임과 광복절 특집 다큐멘터리 레지스탕스에 대한 의견을 드러볼까 합니다.

먼저 디펜스 게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질병과, 축산물을 우리가 접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프로그램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축사를 운영하시는 농장주, 가축 방역사, 예찰 사원, 그리고

검사원 등 유통과정에서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느끼는 어려움들과 고내들이었고, 시청자 입장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이해관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축산물을 우리가 접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많은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화두와 시사점들을 제시해 주셔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레지스탕스 같은 경우는 윤봉길 의사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접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락 폭탄 투척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농민계몽운동, 야학 활동 등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구성 면에서도 명망 있는 국내 그리고 일본 전문가들, 현직 국회의원 가족까지 인터뷰를 실어서 신뢰성 있게 역사적 사실을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음악적 효과를 많이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긴장감도 장면에 따라서 높여주고 가슴을 웅장하게 해주는 효과들도 있었는데 이게 익숙지 않다보니까 간혹 음악적으로 과하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다소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시각적인 것보다 청각적인 것에 더 몰입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지역성 얘기도 했지만 이 프로그램은 사실 지역 방송의 한계를 뛰어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지속적인 보존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점점 전문가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정미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마정미 위원

저도 보고 느꼈던 리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다뤄보고 싶은데요. 먼저 광복절 특집 프로그램을 칭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봉길 의사 상해 의거 9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레지스탕스 나의 전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는데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윤봉길 의사의 죽음과 처형에 관한 사실.. 이 내용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니기는 했습니다만 이상파 방송에 등장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예산에서의 야학 활동과 여러 역사학자들의 인터뷰, 그리고 사료를 통해서 농촌계몽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차분하게 잘 다뤘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사들은 어떤 프

로그래를 만들었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타 방송사의 광복절 프로그램에 비해서 대전 MBC의 특집 프로그램이 단연코 눈에 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 지상파 모 방송사는 광복절 특집으로 일본의 헌법 개정, 자위대 현황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복절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만 대전MBC는 윤봉길 의사에 집중해서 아주 좋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도 좋았고 사료를 굉장히 정밀하게 다룬 것도 좋았고요 학자나 가족들의 인터뷰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배경 음악 편집 모든 것이 뛰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문제 의식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90주년이고 광복절은 77년째더군요. 이만큼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 광복절에 대해, 혹은 해방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환기시켜주고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MBC가 다큐멘터리를 참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전 38민주의거를 다뤘던 독립영화 '대전,1960'이 국제영화제에 출품돼 경쟁작에 선정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로 출발한 과인은 그러하오 프로그램을 주의 깊게 봤는데요. 첫 방송 치곤 아주 순조로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정규 편성을 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첫 방송 치고는 호흡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대 담론이나 학술적인 과학 지식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과학자들의 설명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콘셉트가 아주 좋았고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어렵게 여겨지는 과학이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진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조금 낮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과인은 그러하오는 제목을 들었을 때 이건 역사물인가 정치물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을 하는 인생 선배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MZ세대의 줄임말 문화를 반영하는 건가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쨌든 눈길을 끄는 제목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뉴스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뉴스투데이에 나왔던 교육 관련 기사입니다. 수업시간에 교단 들어온 건 교권 침해 논란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흥성에서 있었던 일이죠. 어제 하루 종일 거의 모든 매체에서 이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느꼈던 것은 이례적이고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기사 자체 혹은 보도 자체는 궁금증을 풀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현상은 보여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연유와 배경을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아마 기사 제보가 있었다면 취재를 분명히 했을 건데 방송기자나 신문기자가 그 내용을 다른 기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학교와 교육청의 의례적인 답변만 들었는데 제 생각에는 학생이나 학부모도 만나고 지역 주민을 만나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면 기사가 더 풍요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전달하고 어떤 의제 설정 등의 기능들도 담당하게 됩니다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정확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장

전문가의 포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정동 사무처장님...

김정동 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과인은 그러하오' 인데 제목하고 주제를 봤을 때 일단 걱정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요새 넘치는 게 상담 프로그램인데, 비슷한 아류가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부터 들었거든요. 하지만 첫 방송 같지 않게 정말 깔끔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사한 주제라도 어떤 형식으로 풀어 가느냐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4부작 파일럿으로 진행이 되는데, 안착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예산 문제 등도 있겠지만 대전 과학 도시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안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도 이후에 본 편성까지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토론 프로그램인 시사각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는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그 전 주에는 우주산업에 대한 공약에 대해 대전시 담당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하셨는데, 시기에 맞는 중요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민선 8기가 시작되고 7월 말에 인수위 백서도 나왔는데 지금 예산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민선 8기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영방송인 대전MBC에서 민선 8기 주요 정책들이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 분야별로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같이 짚어보고 고민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보도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구성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미숙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박미숙

그동안 제가 TV를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무심히 넘겼는데, 제가 시청자 위원이 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전MBC 프로그램을 많이 서치 했어요. 뉴스도 보고 4부작 파

일렛 프로그램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그동안 끈대에 속했구나 하는 반성을 많이 했고, MZ세대의 생각들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도 MZ세대들이 많이 있는데 퇴근 시간에 먼저 퇴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눈치 보고 퇴근을 못하는 사회 생활을 했는데 이 '과인은 그러하오'를 보면서 대표로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고, 재치 있게 프로그램을 풀어가는 걸 보면서 회사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같더라고요. 그걸 보고 직원들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보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욱 위원장

'과인은 그러하오'에 대해서 시청자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새 시사각각 리스트를 보면 주제를 잘 잡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주제를 잡는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7월 말에 지역 인재 엑서더스 문제 얘기했을 때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들이나 통계학 하시는 분들 얘기도 중립적으로 더 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 공약을 어떻게 잘 지키나 하는 건 1부, 2부 구성해서 2~3주 방송해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다고 50분짜리 프로그램을 100분으로 늘리자는 소리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시청자한테 또 부담이 되니까요. 이런 의견을 추가로 같이 전합니다.

이은표 간사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MBC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뉴스 준비도 복잡하고 해서 보도국장님 먼저 해당 분야 답변을 하고 자리를 이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웅 보도국장

오늘 2001년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사건 공식 브리핑이 있어서 기사가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요. 어제 보도된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한 보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 실제 SNS를 통해서 흥성지역 중학교 학생이 올린 영상들이 틱톡이라는 SNS를 통해서 많이 번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한 부분들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이 왜 올렸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교실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기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지점인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어제 보도할 때는 현 상황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 불법 촬영이 이루어졌으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학교에서 진행된 조사를 기다려볼 수밖에 없어서 시청자들이 느낄 수 있는 궁금증까지 도달하지 못한 점들은 후속적으로 더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학교나 교실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교권 침해가 최근 3년 이내에 100여 건 이상씩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는 학생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체벌 등이 주요 이슈였다면, 최근에는 특히 교실 내에서의 교권 침해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토대로 해서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이슈에 대한 부분들인데... 과거 공약 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그리고 오늘도 관련 보도를 합시다마는 전 시장이 내뱉던 예산 감축에 대한 부분들... 특히 주민 참여 예산들이 제일 삭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타당성을 갖고 어떤 근거를 갖고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감시하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국 보도책임자 회의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지역을 벗어나 MBC의 강점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안고 있는 이슈들이나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해보자... 예를 들면 지역 소멸 문제 같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제라든지 지역 대학의 위기로 찾아오고 있는데 각자의 네트워크에서 취재를 같이 진행하고 전국 방송을 통해서 보도를 한다면, 대한민국이 꼭 수도권만으로 구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그런 보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성희 편성국장

안녕하세요. 편성국장입니다. 오늘 해주신 말씀을 보니까 역시 균형인 것 같아요. 자막에 대한 지적, 다큐멘터리 레지스탕스 음악, '과인은 그러하오'의 세대 간의 균형... 전체적으로 오늘 지적은 균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인' 같은 경우는 자막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들이야 보면 알겠지만 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유행어들도 섞여 있어 해석하다 보면 본 내용을 잃게 되는데 자막이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치고 균형감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회 부터는 읽기가 편해지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레지스탕스도 마찬가지로인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다뤘었어요. 그래서 순국 이후에 순국지에서 암장지로 어떻게 돌아오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농촌계몽활동도 있었고, 특히 윤주경 의원이 나와서 할아버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해줬던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번에 또 노력했던 게 음악이었어요. 담당PD가 음악을 선곡해서 다 깔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음악다큐 같은 느낌도 들고 했는데, 전문 믹서들이 했으면 그런 오류가 없었을 텐데 음악에 너무 과하게 몰입하다 보니까 내용을 넘어 균형감을 잃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PD가 음악에 대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순국일이 12월 19일이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MBC 본사에 편성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순국일에 맞춰서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을 다시 달아서 방송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펜스 게임은 저희가 농림부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제작한 거예요. 방역본부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협찬을 받아 제작했지만 오히려 현장에서 방역 사들의 땀 냄새들이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기획 의도와 취지에 맞게 잘 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역본부가 하는 일이 AI나 구제역이 생기면 방역복을 입고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찰 활동이라든지 도축, 검역 등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고 특히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10년을 일해도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 그리고 96%가 무기계약직 이라는 현실에 대해서 공감했을 것 같고 잘 전달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규 프로그램이 된다면 과학 도시의 특성을 녹여내는, 전통 과학이 아니라 과학 예능이라 할지라도 과학이 대전이고, 대전이 곧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카이스트 출신의 두 패널이 나왔지만 원로 과학자도 나와서 세대 간의 무게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녹여낸다면 정규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네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최병욱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인사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최병욱 위원장

시청자 위원회를 꾸준히 하다보니까 진짜 대전MBC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면 호응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목표 지향적인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고요. 오늘 특히 9분이 참여해서 진지하게 의견 주시고 경청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대전MBC 프로그램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환균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환균 사장

모니터도 열심히 해주시고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폭우 때문에 온 나라와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에서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에 물난리가 났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난방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서울은 피하고 대전 충남 지역에만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어떻게 방송을 하지? 우리가 이 재난방송을 생방송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실장님한테 그거 한번 상정하고 계획을 짜보자.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 지역 방송으로서 우리 지역민의 안전, 그 다음에 재산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짜놓자. 그래야 어느 순간에 그게 닥치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지상파 방송의 제1의 덕목은 현장성과 시의성이고 이걸 놓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큐멘터리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 더 중요하고, 다큐는 어떻게 보면 악센트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처럼 폭우가 쏟아진대거나 가뭄이 계속될 때 대전MBC 라디오는 지금 이렇게 난리인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 날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지상파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MBC가 지금 오늘의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나, 부적절한 방송을 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이은표 간사

이상으로 8월 시청자 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9월에 뵈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